

2 강. 인상주의와 클로드 모네: 순간을 영원으로 남긴 화가들

2026 년 4 월 16 일 10:30-12:00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 녹음할 수 없습니다.

클로드 모네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는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프랑스 화가로, 파리 인근 항구도시 르아브르에서 성장했다. 어린 시절부터 학교 규율보다 바닷가에서 변화무쌍한 자연을 관찰하는 것을 즐겼고, 피사체의 특징을 빠르게 포착하는 탁월한 관찰력으로 10 대 시절 캐리커처만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화가 외젠 부댕(Eugène Boudin)을 스승으로 만나 '야외에서 직접 빛을 보며 그리는 외광회화(plein air painting)'의 개념을 배운 것이 평생의 화풍을 결정지었다. "부댕을 만난 후 나의 두 눈이 비로소 열렸고, 진정으로 자연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모네의 말이 이를 잘 대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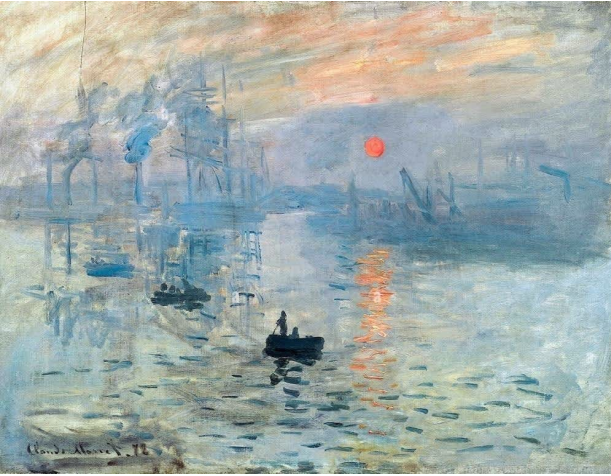
1874 년 왕립 살롱전에 반발한 화가들이 결성한 '무명예술가협회'의 첫 그룹전에서 모네가 출품한 <인상, 해돋이>^{작품 1}를 본 비평가 루이 르로이(Louis Leroy)가 조롱의 의미로 '인상주의'라 불렀다. 이 이름은 역설적으로 새 예술 운동의 이름이 되었다. 모네는 19 세기 인상주의의 지도자로, 20 세기 추상미술의 탄생에도 큰 영감을 주었다.

인상주의의 핵심 언어

전통 살롱화	인상주의
스튜디오 인공조명, 매끈한 붓 터치	야외 자연광(외광회화)
소묘와 윤곽선 중시	색채와 빛의 순간적 변화 포착
완성된 묘사, 캔버스 천 완전히 피복	짧고 역동적인 붓 터치, 미완성의 역동성
그리스·로마 신화 등 역사화 선호	일상 풍경과 현재의 순간

모네를 포함한 인상주의 탄생의 배경에는 기술 발전도 있었다. 1820 년대 증기기관차의 등장으로 화가들이 야외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됐고, 튜브 물감의 발명으로 물감을 야외에 들고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모네가 생 라자르 역을 작품으로 남긴 것도 이 시대적 변화와 맞닿아 있다.

"저는 위대한 화가도 위대한 시인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거라곤 자연에서 느낀 것을 표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뿐입니다." — 클로드 모네



작품 1 인상, 해돋이, 1872



양산을 쓴 여인, 1875



수련, 구름, 1903

정우철(도슨트·작가) 작품 분석이 주를 이루던 기존의 미술 해설에서 벗어나 화가의 삶과 예술을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전시 해설가. 지은 책으로는 『화가가 사랑한 밤』, 『화가가 사랑한 바다』, 『내가 사랑한 화가들』, 『미술관 읽는 시간』, 『도슨트 정우철의 미술 극장 1~2』 등이 있다.